

□ 서평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1970, pp. 390

이 병 수

(신대원 3년)

본서의 저자인 브루너 교수는 프린스턴 신학교와 함부르크 대학 등에서 공부했으며 유명한 선교학자 Dr Hendrik Kramer에 의해 함부르크 대학에서 선교학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을 연구했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령세례에 대한 역사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런 성령세례가 신약성경의 본문과 주석적으로 비교해 볼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세례가 언급됐다는 성경 본문을 정말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1c의 상황에서 쓰여진 그 말씀을 20c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한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책에 임있는 주석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전인수격의 주관적 성경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역사적, 비평적, 성경적 연구를 제시한다. 끝으로 이런 주석적 기초하에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성령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점증하고 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운동은 남미 북구 동구 소련 중공 공산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까지 퍼져있다. 그래서 그 운동의 현주소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 이유는 기존 교회가 성령을 체험으로 보지 않고 교리로 봄으로써 너무나도 교리적 신앙에 얽매어 생기가 없고 무미 건조하여 성장이 정체된데 반해 성령세례를 받은 다시말해 성령을 체험한(성령세례와 성령의 체험은 똑같은 말) 교인이나 그것을 주장하는 교회는 기쁨, 즐거움과 능력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인 능력의 원천이며 그것을 받지 않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적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성령세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내에 있는 신자가 모두 다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중생 이후의 사건으로써 즉 중생과 분리된 사건으로써 개인적이며 능력적이며 눈으로 보고 만질수 있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들과(오순절주의자들) 같이

성령을 체험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교리로 봄으로써 다시말해 성령세례를 무시함으로써 성령의 역동적(dynamic)인 면보다 정적(static)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정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령의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회복의 근거로써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의 그 성령께서 오늘날도 계속(subsequence) 역사하시며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내용에서 성령세례란 중생이후의 분리된 사건으로써 이것을 받는 데는 개인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이 성령세례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령은 기계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성령세례란 인간의 요구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다루고져 하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써 인간편의 기도와 순종을 대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데 그 성경적 근거로써 행 4:31절 “빌기를 다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과 5:32절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말씀들의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석상의 오류를 비판하기를 그 본문은 성령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기도 했으며 순종함으로써 성령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은 성령의 은사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논리로 성령주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여 약속에 따라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요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만일 중생이후에 개개인이 성령세례 받기 위해 요구에 따라 성령이 주어진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과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것같이 믿음과 순종의 인간 조건을 주장하는 오순절주의자들에게 그 저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바울이 인간조건과 하나님의 의가 심각하게 상반됨을 보았던 것같이 저자도 그런 모순을 오순절 운동에서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주심은 위에서(Huper)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가능한 것이지 믿음+인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며 믿음+인간조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할례를 경고하는 것과 같이 다른 복음이며 이단이라고까지 저자는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다. 그리하여 많은 혼란이 이 땅에 가득차 있다.

그 혼란들으로써 기도원의 산상 부흥회의 부흥사의 ‘성령 받으라’는 명령에서 성령을 받는다든지 성령받기 위해 금식 철야기도 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는 신자들의 모습에서와 능력받아 나를 나타내고 자랑키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잘못된 성령 이해에 대해 본서는 성령주심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된 예언의 성취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본질적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교회는 성령세례에 의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적 계승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서의 중요성이 뛰어나다 하겠다. 그리고 성령받음에 인간조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족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개혁주의적이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성령에 대한 취급이 신약의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특히 고린도전서에 국한된 것과 특히 물세례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상징적인 면보다 세례가 바로 성령세례 라고까지 주장하는 아쉬움이 있다.